

정부, 첫 대드론 KS 제정 착수 불법 드론 위협에 대응 ‘강화’

국표원, 대드론 표준안 행정 예고
공공조달 지연 해소, 시설방어 강화
탐지·식별 장비 성능평가 기준 마련
실제환경 반영한 통합 시험기준 제시
내년 상반기 확정, 기업 생태계 기대

미확인 드론의 불법비행·테러 위협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드론(Anti-drone) 시스템 도입의 기준이 될 첫 국가표준(KS) 제정에 나선다. 표준 부재로 인해 공공기관의 장비 도입이 지연돼 온 만큼, 국가표준 제정이 완료되면 발전소·공항 등 주요 기반시설의 드론 방어체계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1일부터 60일간 ‘대드론체계 구성장비 운용 성능 시험방법’ 국가표준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의견 수렴 후 보완 작업을 거쳐 2026년 상반기 제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표원에 따르면, 최근 미확인 드론에 의한 국가중요시설 주위의 불법비행, 시설침입, 정보수집, 테러위협 등 보안 위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기관과 기업이 대드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나, 표준화된 성능시험방법이 부재해 장비 간 성능 비교, 신뢰성 검증, 시험결과의 객관성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더플라츠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전파산업대전에서 인공지능 전자기스펙트럼 정찰 시스템을 탑재한 드론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도심이나 산악, 시설보호구역 등 실제 운용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장비 성능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통일된 시험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표준안은 레이더, RF(조종신호) 스캐너, EO/IR(전자광학/적외선) 카메라 등 탐지·식별 장비, 그리고 재머(무선 주파수 무력화 장비)와 같은 무력화 장비의 성능을 실외 환경에서 정량 평가하는 기준을 담았다. 침투 드론에 대한 탐지거리·각도, 추적 성능, 식별 정확도, 무력화 거리 등 시험환경·절차·기록 방식 등도 포함된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 2021년부터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의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을 통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한국공항공사, ETRI, 육군 등 산학연군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했으며, 올해 6월 대테러센터와 국경원 주관 실증시험 등 4회에 걸친 현장 검증을 거쳤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표준 부재로 인해 공공조달 등 국가중요기관들이 대드론 시스템 구축시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추가로 필요한 표준들도 제정을 추진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증권사 4곳, ‘우수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미래에셋·삼성·한투·NH)

노동부, 41개 사업자 대상 평가 결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4개사가 정부로부터 ‘우수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41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용 성과와 역량, 수수료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가입자의 사업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정 평가제도로,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에는 46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5개사를 제외한 41개사가 참여했고,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기준 99.9% (431조6988억원)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운용상품 역량, 수익률 성과, 조직·서비스 역량, 수수료 효율성

등 4개 항목 15개 평가지표를 대상으로 했다.

평가 결과, 미래에셋증권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상품 검증 및 사후 성과평가 체계를 고도화한 점이 두드러졌다.

삼성증권은 디지털본부와 연금본부를 통합해 연금운용 기능을 디지털 기반으로 강화했고, 확정급여(DB)형 퇴직부채 성향을 세분화해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 역량을 확보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재정검증 산출과 검증 업무를 이원화해 결과 신뢰도를 높였다.

NH투자증권은 리테일 고객의 연금 상품 선택을 돕기 위해 ‘리테일 어드바이저리 본부’를 신설했다.

한편, 업권별 우수 사업자로는 하나은행(은행업권), 삼성생명(보험업권), NH투자증권(증권업권)이 선정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협, 국산 쌀 술·가공식품 200종 한자리

‘K-라이스페스타’ 성황리 폐막

농협중앙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 ‘2025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가 30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달 28일부터 사흘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이 행사는 국산 쌀로 만든 술과 가공식품을 발굴·홍보하는 동시에 판매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농협은 행사에서는 ▲증류주, 막걸리, 약청주 등 국산 쌀로 만든 술 200여종 ▲쌀로 만든 참신한 가공식품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와인 등을 전시했다.

특히, 지난해 인기가 많았던 ▲막걸리 빚기 체험을 비롯해 ▲황금쌀을 찾아라 ▲우리농산물 푸드아트 대회뿐만 아니라 ▲토크콘서트 ▲술 MBTI 찾기 ▲

주안상 대회 ▲도슨트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농협은 지난 5월 국산 쌀을 이용해 우리술과 쌀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품평회 참여 접수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업체 470여 곳의 출품작 780여 점을 4개월 간 심사했다. 품평회를 통해 7개 부문에서 총 28개 제품을 선정했고, 부문별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1점 ▲농협중앙회장상 1점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상 2점에 대해 상금(도합 2억8000만 원) 등을 수여했다.

또 수상작 판로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수도권 주요 농협하나로마트 6개소(고양, 성남, 수원, 동탄, 양재, 창동) ▲농협몰 ▲술마켓·술담와 등에서 특판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돌입

노동부, 상습 체불사업장 집중 점검
신고 외 ‘숨은 체불’까지 전면 조사
사업주 자진신고제 시범 도입 등 박차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의 임금 체불 신고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30일 최근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을 1차 조사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투입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신고 노동자의 체불임금뿐 아니라, 같은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의 체불 피해도 확인한다. 임금 체불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숨은 체불’도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내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고려해, 내년에는 2회 이상 체불 신고 사업장을, 2027년까지 전체 체불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수조사와 병행해 ‘사업주 임금 체불 자진신고제’도 12월 1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사업주는 방문·우편·온라인 방식으로 체불 사실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체불 금품 확정

및 청산 절차를 안내한다. 정부는 자진 신고 시범 운영 성과를 평가해 정식 제도로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와 ‘사업주 임금체불 자진신고 제도’가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 내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무보, 지자체와 中企 수출지원 협력 강화

‘안심 수출 파트너스 데이’ 개최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기여한 지자체와 무역보험 지원 협력을 강화한다.

무보는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안심 수출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하고, ‘5급 3특’ 기반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불안정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수출 중소·중견 기업 수출을 지원한 53개 지자체를 초청한 가운데 열렸으며, 서울시장 등 10개 지자체 담당자에게 수출 유공 포상을 수여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공유했다.

무보는 올해 지자체, 은행, 공공기관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특례보증지원 등 협력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사상 최초

로 100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이같은 지원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 절반 이상인 5만1000개사가 무역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장진욱 무보 중소기업사업본부 부사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우리나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무보와 지자체간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며 “지자체를 포함한 수출지원 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각 지역 현장 목소리가 무역보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기후부, 이달 생태관광지 ‘서산 천수만’

멸종위기종 서식하는 생태 핵심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2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충남 서산의 천수만 철새도래지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천수만 철새도래지는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형성된 넓은 농경지와 담수호, 갈대밭이 어우러져 철새들의 서식에 최적화된 지역이다. 동아시아 철새의 이동 경로상 중앙에 위치해 있어, 시베리아와 만주 등 북부지역에서 동남아시아로 이동하는 철새들이 경유하는 중요한 중간 기착지다.

천수만 일대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황새 및 고니를 비롯해 II급인 흑두루미 등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관찰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흑두루미 개체수의 약 70%가 이곳에서 관찰될 만큼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지역이다.

이곳의 주요 생태·문화관광자원으로는 서산버드랜드, 해미읍성, 부석사, 간



충남 서산시 해미면 순교 성지.

/뉴시스

월암, 서산 한우목장(월빙산책로) 등이 있다. 서산버드랜드는 철새전시관, 4D 영상관, 동지전망대, 생태탐방로 등이 조성되어 있는 철새 관찰에 최적화된 자연생태공원이다. 특히, 동지 전망대에서는 황새의 휴식 및 취식 모습 등을 관찰할 수 있다.

해미읍성은 조선 초기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축성된 충청도 병마절도사 병영이 있던 평지성이다. 낙안읍성, 고창읍성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읍성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